

오가와 케이키치(小川敬吉) 건축자료 수집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협의

2018.3.31. - 2018.4.7.
일본(교토, 고베, 히로시마, 치쿠쵸, 카라쓰, 간자키)

이규철 부연구위원, 김종범 위촉연구원

차 례

제1장. 출장 개요	1
1. 개요	1
2. 목적	1
3. 업무수행 계획	2
제2장 오가와 케이키치 건축자료 수집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협의	8
1. 교토대학 건축도서관 소장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 조사	8
2.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 연구자 인터뷰: 요시이 히데오	10
3. 오가와 케이키치 친족 인터뷰: 오자모토 마사미쓰	13
4. 오가와 케이키치 친족 인터뷰: 나카가와 야스노	16
5. 나고야성 박물관 소장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의 아카이브 구축 협의	19
6. 나고야성 박물관 소장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 조사	24
제3장 일본의 건축 아카이브 현황 조사	26
1. 곤도 유타카 아카이브 구축 연구자 인터뷰: 야노 케이지	26
2. 곤도 유타카 아카이브 구축 현황 조사	29
3. 타케나가 목수 도구관 건축 아카이브 조사	35
4. 요네다 미요지 아카이브 관련 친족 인터뷰: 하라 카즈에	37
5.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답사	39
6. 요시노가리 유적공원 답사	43
제4장 출장 성과	46
[부록] 취득자료	47

제1장. 출장 개요

1. 개요

■ 과제명 : 오가와 케이키치(小川敬吉) 건축자료 수집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조사

■ 대상지 : 일본 교토, 고베, 히로시마, 치쿠조, 카라쓰, 간자키

■ 기 간 : 2018년 3월 3일(토) - 4월 7일(토), 7박 8일



[그림 1] 출장지역(교토, 고베, 히로시마, 치쿠조, 카라쓰, 간자키)

2. 목적

- 오가와 케이키치(小川敬吉) 건축자료 수집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협의
 -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 열람 및 아카이빙을 위한 소장기관 협의(나고야성 박물관 및 교토대학 건축학과)
 -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의 아카이브 이용 협의
 -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의 디지털 스캔을 위한 절차와 방법 협의
 - 오가와 케이키치 아카이브의 홍보와 활용을 위한 단행본 출판, 전시 및 심포

지엄 개최 협의

- 오가와 케이키치 유족 및 관련 연구자 면담
- 일본의 건축 아카이브 현황 조사
 - 교토학 역채관 및 리쓰메이칸 아트리서치 센터의 아카이브 현황 조사
 - 타케나가 도구박물관의 아카이브 현황 및 활용 사례 조사

3. 업무수행 계획

(1) 오가와 케이키치(小川敬吉) 건축자료 수집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협의

- 오가와 케이키치(1882-1950)는 『朝鮮古蹟圖譜』 편찬의 중요일원 중 한 사람으로 고고학뿐만 아니라 건축물 조사 및 수리공사 등도 담당했던 인물임
- 2000년대 이후 오가와 케이키치의 한국건축 관련 자료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스기야마 노부조(林山信三), 세키노 타다시(関野貞)의 자료에 준하는 건축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근무하던 시절 작성·수집한 자료 중 일부가 오가와 케이키치 사후에 교토대학과 나고야성 박물관으로 분리되어 보관 중이며, 2017년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고야성 박물관 자료의 일부를 디지털화(도면 제외)하였음
- 국외출장을 통하여 일본 내 오가와 케이키치의 한국건축 관련 자료 현황을 파악하고, 나고야성 박물관 자료 중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디지털화하지 않은 도면자료 등에 대한 추가 아카이브 구축 협의가 필요
- 이와 함께 자료의 이용협의 및 활용을 위해 나고야성 박물관, 오가와 케이키치 친족과의 협의가 필요

[자료조사]¹⁾ 교토대학 건축도서관 소장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 조사

- 일시 : 2018.04.02.(월) 10:00~13:00
- 장소 : 교토대학 건축계 도서관
- 참석자

1) 출장목적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회의 순서대로 정리하였음

소외 - 도서실 담당자, 김민숙 통역

소내 - 이규철 부연구위원, 김종범 위촉연구원

[회의2]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 연구자 인터뷰: 요시이 히데오

- 일시 : 2018.04.02.(월) 16:00~19:00

- 장소 : 교토대학 문학연구과

- 참석자

소외 - 요시이 히데오(吉井秀夫) 교수(교토대학 문학연구과-조선고고학), 김민숙 통역

소내 - 이규철 부연구위원, 김종범 위촉연구원

요시이 히데오(吉井秀夫) 교수

- 교토대학 문학연구과에서 조선고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도한한 일본인 연구자들의 바탕으로 20세기 이후 한국건축과 고고학적 성과를 연결 짓는 연구를 진행 중

- 일본 내 한국 고고학 및 건축 기록에 대한 현황 조사,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회의5] 오가와 케이키치 친족 면담: 오자모토 마사미쓰

- 일시 : 2018.04.05.(목) 10:00~13:00

- 장소 : 치쿠조마치 오자모토 마사미쓰 씨 자택

- 참석자

소외 - 오자모토 마사미쓰(尾座本雅光) 향토 문화재위원(오가와 케이키치 친족), 히사노 데쓰야(久野哲矢) 나고야성 박물관 학예원, 김민숙 통역

소내 - 이규철 부연구위원, 김종범 위촉연구원

[회의6] 오가와 케이키치 친족 면담: 나카가와 야스노

- 일시 : 2018.04.05.(목) 14:00~16:00

- 장소 : 치쿠조마치 나카가와 야스노 씨 자택

- 참석자

소외 - 나카가와 야스노(中川やすの) 씨(오가와 케이키치 친족), 히사노 데쓰야(久野哲矢) 나고야성 박물관 학예원, 김민숙 통역

소내 - 이규철 부연구위원, 김종범 위촉연구원

[회의8] 나고야성 박물관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의 아카이브 구축 협의

- 일시 : 2018.04.06.(금) 11:00~13:00
- 장소 : 나고야성 박물관
- 참석자
소외 - 가모하라 히로유키(蒲原宏行) 관장, 부관장, 학예부장,
히사노 데쓰야(久野哲矢) 학예원(이상 나고야성 박물관), 김민숙 통역
* 부관장 및 학예부장은 3월20일 인사발령 예정이므로, 직책만 명시
소내 - 이규철 부연구위원, 김종범 위촉연구원

[회의9] 나고야성 박물관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 조사

- 일시 : 2018.04.06.(금) 16:00~18:00
- 장소 : 나고야성 박물관
- 참석자
소외 - 히사노 데쓰야(久野哲矢) 학예원, 이현경 학예원(나고야성 박물관), 김민숙 통역
소내 - 이규철 부연구위원, 김종범 위촉연구원

(2) 일본의 건축 아카이브 현황 조사

- 일본 소재의 한국건축 관련 아카이브 자료에 대해 국내의 여러 관련 기관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이번 출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교토와 큐슈 지역의 아카이브 자료를 조사하고자 함
- 교토 소재의 리쓰메이칸대학 및 교토학 역채관에는 곤도 유타카(近藤 豊) 자료를 중심으로 1930년대 한국관련 자료 약 700점이 수집되었으며, 현재 해제작업과 관련 연구가 진행 중
- 고베 소재의 타케나가 목수 도구관에는 타케나가 건축회사의 도구 및 기술자료, 도면자료가 아카이브로 구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실증연구가 진행 중
- 히로시마 소재의 히로시마 평화기념 자료관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히로시마 원폭돔에 대한 정보 및 관련 기록을 수집·정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전시 콘텐츠뿐만 아니라 건축가 단게 겐조(丹下健三)에 의해서 일본 전통건축의 현대화 양식을 정립한 주요 건축물로 알려져 있음
- 간자키 소재의 요시노가리 유적공원은 야요이 시대 발굴지를 바탕으로

복원한 취락지역으로서, 복원된 유적과 관련된 건축 및 고고학 자료가 아카이브로 구축되어 있음

[회의1] 곤도 유타카 아카이브 구축 연구자 인터뷰: 야노 케이지

- 일시 : 2018.04.01.(일) 11:00~14:00
- 장소 : 리쓰메이칸 아트리서치센터
- 참석자
 - 소외 - 야노 케이지(矢野桂司) 교수(리쓰메이칸대학 지리학과·문화재
방재연구소), 김민숙 통역
 - 소내 - 이규철 부연구위원, 김종범 위촉연구원

야노 케이지(矢野桂司) 교수

-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인문지리학과 학제 간 지리정보과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 내 연구기관인 아트리서치 센터와 역사도시방재연구소에서도 근무 중
- GIS와 VR 기술을 이용하여 컴퓨터상에서 교토의 시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음
- 곤도 유타카(近藤豊) 사진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공동연구대표 역임
- 일본 내 한국 고고학 및 건축 기록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회의3] 곤도 유타카 아카이브 구축 현황 조사

- 일시 : 2018.04.03.(화) 11:00~19:00
- 장소 : 교토학 역채관
- 참석자
 - 소외 - 와카바야시(若林) 선생, 오오즈카(大塚) 선생(교토학 역채관),
김민숙 통역
 - 소내 - 이규철 부연구위원, 김종범 위촉연구원

[회의4] 타케나카 목수 도구관의 건축 아카이브 조사

- 일시 : 2018.04.04.(수) 10:00~13:30
- 장소 : 타케나카 목수 도구관
- 참석자
 - 소외 - 최고은 학예사(타케나카 목수 도구관), 김민숙 박사
 - 소내 - 이규철 부연구위원, 김종범 위촉연구원



[그림 2] 西岡常一のノートと図面(타케나가 목수 도구관 소장 자료)

[회의7] 요네다 미요지 아카이브 관련 친족 인터뷰: 하라 카즈에

- 일시 : 2018.04.05.(목) 17:00~20:00
- 장소 : 치쿠조마치 하라 씨 자택
- 참석자
 - 소외 - 하라 씨(요네다 미요지 친족),
 - 히사노 데쓰야(久野哲矢) 나고야성 박물관 학예원, 김민숙 통역
 - 소내 - 이규철 부연구위원, 김종범 위촉연구원

[현장답사] 히로시마 평화기념 자료관

- 일시 : 2018.04.04.(수) 14:30~16:30
- 장소 : 히로시마 평화기념 자료관
- 참석자
 - 소내 - 이규철 부연구위원, 김종범 위촉연구원

〈히로시마 평화기념 자료관〉

- 히로시마 평화기념 자료관은 현재 히로시마 지역의 도시재건 역사를 담은 콘텐츠로 전시 아카이브를 구성
- UNESCO 세계문화유산 가치 평가 본문 중 발췌: “1966년 히로시마 시의회는 원폭 돔을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원폭 돔이 우뚝 서 있는 히로시마 평화 기념 공원은 1950년에서 1964년 사이에 설계되었다. 공원 안에 있는 평화기념 전시관(단계 겐조 설계)은 1955년에 문을 열었다. 1952년 이후로 이 공원은 매년 8월 6일에 열리는 히로시마 평화 기념식의 장소가 되어 왔다.”



[그림 3]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전경

[현장답사] 요시노가리 유적공원

- 일시 : 2018.04.07.(토) 10:00~16:00
- 장소 : 간자키 요시노가리 유적공원
- 참석자
소내 - 이규철 부연구위원, 김종범 위촉연구원

〈요시노가리 유적공원〉

- 1986년 공업단지 개발 중 발견되어 12만평 규모의 야요이 시대 취락유적으로, 발견된 고고학적 성과는 한반도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음
- 유적공원은 한국건축사와 일본건축사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취락으로 복원되어 활용 중이며, 요시노가리 복원(안)은 현재 백제사 및 가야사 건축물 복원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요시노가리 유적의 발굴성과와 건축물 복원(안) 등 1980년대 이래 유적과 관련하여 생산된 자료가 생활관 및 자료관을 중심으로 아카이브 구축되어 있음



[그림 4] 요시노가리 취락 복원 전경

제2장. 오가와 케이키치 건축자료 수집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협의

1. 교토대학 건축도서실 소장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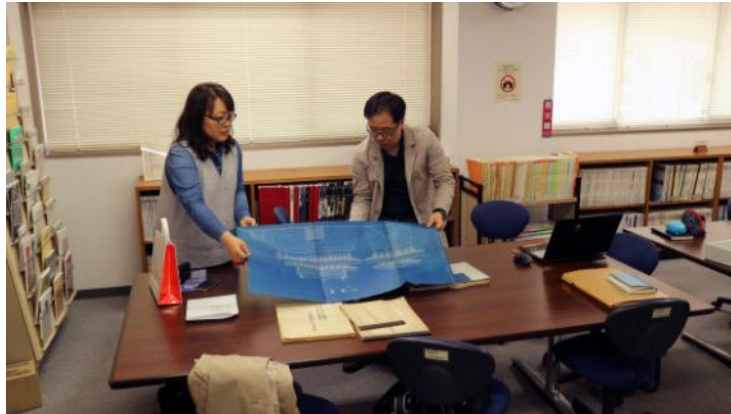
■ 개요

- 일시 : 2018.04.02.(월) 10:00~13:00
- 장소 : 교토대학 건축계 도서실
- 참석자
소외 - 코메다(米田) 도서실 사서, 김민숙 통역
소내 - 이규철 부연구위원, 김종범 위촉연구원

■ 자료조사 내용

- 자료의 소장 현황 및 아카이브 구축 협의
 - 오가와 케이키치의 교토대학 소장 자료는 조선총독부박물관 후배인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에 의해 교토대학으로 이관
 - 오가와가 한반도에서 문화재자료를 조사했을 당시는 고고계와 건축계가 크게 구분되지 않았으므로, 교토대학이 소장한 오가와 자료는 미술·건축조각 등의 다양한 범주의 자료가 혼재하고 있음
 - 1994년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오가와 케이키치 조사 문화재 자료』를 발간하여, 교토대학 소장 자료 중 사진자료만 국내에 소개된 상황
 -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간한 자료집은 발간 당시 교토대학 측과 협의하여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자료를 촬영해간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현재 교토대학 요시다 캠퍼스의 건축계 도서실에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가 소장되어 있으나, 향후 2-3년 내에 요시다 캠퍼스의 자료를 교토의 가쓰라 캠퍼스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
 - 자료의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협의는 교토대학 건축계 도서실의 여건상 2018년 하반기 이후에 가능함
-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의 열람
 - 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자료 중 43장의 낱장자료(사진·도면·스케치)와 7첩의 바인딩자료(도면·야장도면)를 열람

- 열람자료 중 『대정2년평양보통문수리기요(大正2年平壤普通門修理紀要)』에 대한 상세열람을 하였음(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컬렉션’에는 1913년도 추정 도판 10장이 소장되어 있음)



[그림 5] 평양보통문 도면 열람



[그림 6] 오가와 사진 및 야장 등 열람



[그림 7] 교토대학 건축계 도서관 전경

2.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 연구자 인터뷰: 요시이 히데오

■ 개요

- 일시 : 2018.04.02.(월) 16:00~19:00
- 장소 : 교토대학 문학연구과 요시이 히데오 교수 연구실
- 참석자
 - 소외 - 요시이 히데오(吉井秀夫) 교수(교토대학 문학연구과-조선고고학), 김민숙 통역
 - 소내 - 이규철 부연구위원, 김종범 위촉연구원

■ 면담 내용

-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의 소장 현황
 - 1945년 이후 교토대학 박물관에 자료가 들어오게 되었고, 발굴자료 일부는 공개가 이루어졌음
 - 유물 등의 고고학 자료는 교토대학 박물관에 소장되었고, 건축자료는 건축계 도서관에서 소장
 - 건축계 도서관 소장 자료는 가목록 작성 등의 기본 정리는 잘 되어 있으나, 자료 공개는 매우 제한적임
 - 교토대학도 일본연구에 필요한 귀중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카이브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목록 구축의 수준)
 - 일부 자료는 교토시의 고려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
 - 고고학 자료 외 건축 자료는 교토대학과 나고야성 박물관에 나뉘어져 있음
 - 나고야성 박물관에서 유족이 고서점에 판매한 자료를 구매하였음
 - 2년 전 나고야성 박물관 특별전에서 자료공개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한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음
 - 자료의 전체모습을 보기위해서는 나고야성 박물관과 교토대학의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함
 - 한국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와 관련된 문서가 소장되어 있으며, 최근에 웹을 통해 공개되었음
 - 국립중앙박물관 자료는 일제강점기 고적 조사의 결과와 이에 대한 회의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교토대학 자료는 고적 조사의 과정에 대한 자료로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결과물 성격의 자료와 함께 살펴보아야 함

- 오가와 자료의 연구 현황

- 스기야마 노부조(衫山信三), 고정룡 교수, 김민숙 박사 등이 일본 내에서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를 연구
- 교토대학의 자료는 훼손을 우려하여 특별열람 신청과 허가를 필요로 하고, 복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마이크로필름만 가능), 관련 연구가 활발하지 못함
- 고고학 분야에서는 발굴일지가 공개되어 고적조사사업 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건축분야에서는 한국건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가 지금까지 교토대학에 없었기 때문에 교토대학의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최근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식민지 시대에 대한 자료를 보려는 연구자가 거의 없음
- 교토대학에서 일본의 고고학사를 정리하면서 식민지 시기 한국 조사의 의미를 조명하였으며, 향후에도 고고학 분야에서는 일본인의 한국 조사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의 사료적 가치

- 오가와 케이키치는 숙련된 전문가로서 한국의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한국에서 실무를 통해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였음
- 오가와 케이키치의 자료를 통해 그가 한국의 문화재에 대해 특별한 의도를 갖고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음
- 한국의 고적 조사는 당시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으므로, 상호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
- 「清文」라는 일본의 잡지를 통해 식민지 시기의 한국 고적의 수리와 관련된 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것이 전수가 아니므로 오가와 케이키치의 현장 자료 해제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음

-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의 연구를 위한 협의 및 제언
 - 교토대학의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에 대해서는 가목록이 작성되어 있으나, 자료의 내용과 수량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목록을 구축해야함
 - 일부 자료의 목록만이라도 해제를 해서 알릴 필요가 있음(이는 국가한옥센터가 수행 예정)
 -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의 대부분이 건축 관련 자료이므로, 건축 분야에서 단행본, 전시회, 심포지엄 등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 건축 분야의 오가와 케이키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 등의 분야와 학제관 연구가 가능함
 - 일본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오가와 케이키치의 현장 기록인 야장은 대부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임. 한국의 주요기관에서 교토대로 직접 접근하여 야장 등의 공개를 요청하면 성사될 가능성이 있음
 - 나고야성 박물관에는 오가와 케이키치의 개인 자료가 많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를 공개하여 학술적으로 이용한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한국의 몇몇 기관들은 자료집만 발행하는 방식을 주로 시행해 왔는데, 이에 대해서 자료 소장기관이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추진방식으로는 교토대학의 자료 공개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교토대학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시와 심포지엄 등을 공동으로 기획하면서 자료 공개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것
 - 자료 공개의 탄력을 받으려면 관계분야 전문가 및 자료 관계자의 호응을 얻어야하고, 그 선행과정으로 자료 해제와 같은 연구 성과가 따라가야 함
 - 오가와 케이키치의 전후 또는 함께 한국에서 조사를 시행했던 인물들을 함께 연구하면, 식민지 시기 일본인의 한국 조사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그림 8] 요시이 히데오 교수 면담 사진

3. 오가와 케이키치 친족 인터뷰: 오자모토 마사미쓰

■ 개요

- 일시 : 2018.04.05.(목) 10:00~13:00
- 장소 : 치쿠조마치 오자모토 마사미쓰 씨 자택
- 참석자
 - 소외 - 오자모토 마사미쓰(尾座本雅光) 후쿠오카현 문화재보호 지도위원(오가와 케이키치 친족), 히사노 데쓰야(久野哲矢) 나고야성 박물관 학예원, 김민숙 통역
 - 소내 - 이규철 부연구위원, 김종범 위촉연구원

■ 면담 내용

- 오자모토 마사미쓰씨의 오가와 케이키치와 그의 자료에 대한 기억
 - 오자모토 마사미쓰씨는 오가와 케이키치의 두 번째 부인의 여동생의 딸의 남편으로, 현재 후쿠오카현의 문화재보호 지도위원을 맡고 있음
 - 오가와 케이키치는 조선총독부에 있다가 고향인 치쿠조마치로 돌아온 후 돌아가셨으므로, 이쪽 지역에서는 그가 조선에서 했던 일을 잘 몰랐음
 - 오가와 케이키치가 지역 촌장을 했어도, 지역사회에서 그의 신상에 대해 아는 이가 없었고 당시에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음
 - 당시 일본은 패전 직후의 상황이라 식민지나 전쟁과 관련된 일을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이 지역에도 조선에서 일하고 온 사람이 많아서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음
 - 오가와 케이키치는 조선에 있을때, 저녁에 귀가하면 도면 그리고, 밥 먹고, 씻고, 또 도면 그리고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함
 - 1950년 오가와 케이키치 사후에 부인인 사요상이 교토대학에 자료를 기증했다고 들었음
 - 큐슈대학 고고학과의 니시타니 타다시(西谷正) 교수가 1960년대에 치쿠조마치 일대를 조사하였고, 그때 사요상(오가와 케이키치의 두 번째 부인)이 2층 창고에 있던 고고학 관련 자료를 큐슈대학 고고학과로 옮겼음
 - 오가와 케이키치의 두 번째 부인인 사요상이 1982년 돌아가신 후, 본인이 지역의 역사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서 자료를 맡게 됨

- 1985년 쯤 교토대학에 자료의 기증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오가와 케이키치 본가 창고에 수장되어 있었음(1950년대의 기증 이후 또 한 차례의 기증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필요)
 - 백제 와당이 집 마당에 남아 있었으나, 이런 고고학 자료는 교토대 박물관에 기증되었음
 - 자료의 가치에 대해 잘 몰라서 자료를 폐기하거나 여기저기 나누어 주다가, 1991~1992년경에 후쿠오카의 데지마 서점에 대부분을 매각
 - 오자모토 마사미쓰씨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30년 가까이 오가와 케이키치의 자료를 곁에 두고 있었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했다고 함
 - 한국 지도, 도자기, 나전칠기 등도 데지마 서점에 매각하였고, 일부는 나중에 나고야성 박물관에서 구입하였고 일부는 데지마 서점에 남아 있거나 미국의 대학에서 구입했다는 얘기도 들었음
 - 사요상이 돌아가시기 전에 족자를 가리키며 “이건 오가와 선생님이 좋아했던 것이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가와 케이키치가 족자나 그림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됨
 - 오가와 케이키치는 그림도 많이 수집했고 유명한 화가의 작품도 있었는데, 현재는 남아있지 않음
 - 오가와 케이키치의 자료에 대해서는 나고야성 박물관의 히사노 데쓰야 학예원에게 설명을 듣고 그 가치를 알게 되었음
- 나고야성 박물관의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 입수 및 관리
 - 후쿠오카의 데지마 서점에 매각한 자료에 대해 큐슈대학에서 조선고고학을 전공하는 니시타니 타다시 교수가 나고야성 박물관에 소개함
 - 1995년 경에 나고야성 박물관에서 데지마 서점의 자료를 구입했으니, 서점에서 3~4년 정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됨
 - 나고야성 박물관에서 2016년 전시를 준비할 때, 담당자인 히사노 데쓰야 학예원이 오가와 케이키치의 고향인 치큐조마치를 들렀다가 후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오자모토 마사미쓰 씨, 나카가와 야스노 씨 등을 만남
 - 나고야성 박물관의 기획전시에 친족들이 소장하고 있던 가방, 슈트케이스, 서류뭉치 등을 전시하도록 협조함

- 전시 이후 친족들이 소장하고 있던 야장과 같은 자료들을 추가로 나고야성 박물관에 기탁하여 1,089점의 자료에 대한 가목록을 작성함(2018년 3월 현재)
- 나고야성 박물관에는 오가와 케이키치가 한국에 가기 이전에 도쿄의 공수학교 시절이나 문부성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던 시절의 도면, 물품, 서류 등도 수행한 도면들도 소장되어 있음

• 기타사항

- 효고현 아마가사키시(尼崎市)에 사는 오가와 케이키치의 손녀 토모코 상이 2017년 11월에 관리가 어려워 묘소를 정리하였음(생가는 그 이전에 매각하였음)
- 생가는 근처 절의 주차장으로 매각되었으며, 묘소는 정리하여 유골을 원래 묘소가 있던 절과 오사카의 절 두 곳에 보관
- 한국 측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자료들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가 생각됨



[그림 9] 오자모토 상 개인 연구실 면담



[그림 10] 오자모토 상 자택 면담



[그림 11] 오가와 케이키치 부친의 문패

4. 오가와 케이키치 친족 면담: 나카가와 야스노

■ 개요

- 일시 : 2018.04.05.(목) 14:00~16:00
- 장소 : 치쿠조마치 나카가와 야스노 씨 자택
- 참석자
 - 소외 - 나카가와 야스노(中川茶野), 요네다 테쓰야(米田鉄也) 문화재 위원, 히사노 테쓰야(久野哲矢) 나고야성 박물관 학예원, 김민숙 통역
 - 소내 - 이규철 부연구위원, 김종범 위촉연구원

■ 면담 내용

- 오가와 케이키치의 생가 및 가족 관계
 - 오가와 케이키치의 첫째 동생은 메이지대학에서 공부하고 그 유족이 현재 도쿄에 거주
 - 둘째 동생은 지역의 도요지 고등학교를 나왔고, 당시 오가와 케이키치 형제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어렵게 생활함
 - 인터뷰를 하신 나카가와 야스노씨는 둘째 동생의 따님
 - 메이지시대에 오가와 케이키치가 고향인 치쿠조를 떠나 공수학교(工手學校)에 들어간 것은 알았지만, 건축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음

- 오가와 케이키치의 장남인 카즈오의 딸 토모코는 현재 70대로, 이 분이 오가와와 생가 및 묘소를 정리하였음
 - 오가와 케이키치 생가는 약 400평 정도 되었으나 현재 철거되었고, 근처 절(専広寺, 정토진종사찰, 宇留津)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 오가와 케이키치의 묘소 역시 정리되어 유골만 묘소를 관리하던 절(宝積寺, 정토종, 宇留津)에서 보관하고 있음
- 오가와 케이키치의 생가 및 묘소 터 방문



[그림 12] 오가와 케이키치의 생가 터



[그림 13] 오가와 케이키치의 묘소 터

- 나카가와 야스노 씨가 소장하고 있는 오가와 케이키치 관련 사진 열람



[그림 14] 남대문 배경의 오가와 케이키치



[그림 15] 창경궁에서 촬영한 오가와 케이키치의 부인 사요상



[그림 16] 평양행 열차의 오가와 케이키치의 장남 카즈오(추정)



[그림 17] 한국의 사찰에서 촬영한 오가와 케이키치



[그림 18] 요네다 테쓰야 씨 면담



[그림 19] 나카가와 야스노 씨 면담

5. 나고야성 박물관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 아카이브 구축 및 이용 협의

■ 개요

- 일시 : 2018.04.06.(금) 11:00~14:00
- 장소 : 나고야성 박물관 사무실
- 참석자
 - 소외 - 가모하라 히로유키(蒲原宏行) 관장, 마쓰오 노리히로(松尾法博) 학예과장, 히사노 테쓰야(久野哲矢), 무라마쓰 요스케(村松洋介) 주사(이상 나고야성 박물관), 김민숙 통역
 - 소내 - 이규철 부연구위원, 김종범 위촉연구원

■ 회의 내용

- 국가한옥센터의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에 대한 관심

- 김민숙 박사를 통해 교토대학과 나고야성 박물관의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를 알게 되었고, 이들 자료에는 주요한 한국의 문화재급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자들조차도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현재 국가한옥센터가 수집한 자료는 1945년 이후의 건축 자료인데,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는 1945년 이전의 자료로서 아카이브의 시기적 범위를 넓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 문화재와 관련된 자료는 대체로 문화재청에서 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와 관련된 자료만을 수집하므로 인물의 일대기와 관련된 모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작업은 쉽지 않음
 - 현재 국가한옥센터에서는 문화재청과 협력을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건축 아카이브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 오가와 케이키치 아카이브의 구축은 국가한옥센터에서 해외 자료로 수집 범위를 넓히는 데에도 의미가 있음
- 국사편찬위원회의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 수집
 - 2016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고야성 박물관의 조선통신사 자료를 수집하면서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를 함께 수집하기로 협의
 - 2017년에 도면 등 대형 자료를 제외한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에 대해 후쿠오카의 업체를 통해 디지털화하여 자료 수집
 - 2018년 상반기에 도면 등 대형 자료의 디지털화 진행 예정
 -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한국관련 자료의 수집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국사편찬위원회의 내부 인트라넷을 통한 디지털 자료의 열람에 대해서만 나고야성 박물관과 협의되었음
 - 국사편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나고야성 박물관에서 이용협의만 된다면 국사편찬위원회와 국가한옥센터는 수집 자료를 공유하기로 함
 - 국가한옥센터의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 수집 계획 및 나고야성 박물관과의 협의
 - 국가한옥센터에서는 교토대학과 나고야성 박물관의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수집하고자 함

- 교토대학과는 2018년 하반기부터 협의 예정이고, 우선적으로 나고야성 박물관과 협의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자 함
- 건축 분야와 고고학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한국과 관련된 자료는 모두 수집할 계획이며, 일본에서의 활동에 대한 자료도 한국에서의 활동과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수집할 예정
- 나고야성 박물관은 한국과의 교류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한옥센터의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의 수집에 적극 협조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건별로 협의가 필요함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를 국가한옥센터가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나고야성 박물관은 허가함
- 2018년도에 예정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도면 등에 대한 디지털화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 이 자료에 대해서도 국가한옥센터가 공유하는 것에 대해 나고야성 박물관은 허가함
-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받은 후에, 받은 자료의 목록과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공식적인 서면으로 나고야성 박물관에 보내기로 협의
- 국사편찬위원회의 수집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에 대해서는 세부목록 작성 등의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추후 협의하기로 함(현재 목록 작성 중인 최근의 친족 위탁 자료 포함)

• 국가한옥센터의 자료 이용에 대한 협의

- 국가한옥센터는 나고야성 박물관 소장의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의 디지털화와 동시에 구체적인 세부 목록 작성을 하고자 함
- 나고야성 박물관은 원칙적으로 국가한옥센터에서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를 수집하고 세부목록을 작성하는 것에 협조할 것임
- 세부목록 작성은 2018년에 몇 개의 자료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나고야성 박물관의 자료 분류 체계, 국가한옥센터의 건축 아카이브 분류 체계,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의 성격 등을 고려함
- 2019년에는 2018년의 시범 목록과 자료 수집에 대한 추가 협의를 통해, 추가 자료의 디지털화와 세부목록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 시행
- 2019년 연구용역은 오가와 케이키치에 자료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김민숙 박

사를 책임자로 함

- 오가와 케이키치의 자료 중에 한일 양국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자료의 세부목록에서 이 부분도 검토 요망
- 국가한옥센터는 오가와 케이키치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한옥센터 홈페이지에 자료의 소개와 간략한 해제를 게시하고자 함
- 게시 자료와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서로 공유하여 최종 결정하지만, 간략한 수준이라면 나고야성 박물관에서는 기본적으로 허가함
- 향후 국가한옥센터에서 오가와 케이키치의 자료에 대해 단행본, 자료집, 전시, 홍보물 등에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나고야성 박물관의 허락을 받을 것이고, 이에 대해 나고야성 박물관은 적극 협의하기로 함
- 국가한옥센터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한국 건축 아카이브 플랫폼에 나고야성 박물관의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를 링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후 협의함

•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에 대한 공동 협력 방안

- 나고야성 박물관에서는 MOU 체결이 일반적인 협력방법은 아니지만, 국가한옥센터와 나고야성 박물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고려할 수 있음
- 양 기관의 담당자가 바뀌거나 기관 내외의 협조를 원활히 얻기 위해 MOU 체결을 적극 검토
- 자료의 수집과 이용 취지, 향후 추진 일정 등은 국가한옥센터에서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받은 후에 서면으로 나고야성 박물관과 협의하기로 함
- 자료의 공개와 웹 게시 등은 나고야성 박물관에서 유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함
- 나고야성 박물관은 국가한옥센터와 협력하여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의 디지털화와 세부 목록 구축을 진행하기로 함
- 세부목록 구축 이후에는 오가와 케이키치 아카이브에 대한 단행본(한국어와 일본어 합본)을 양 기관을 포함한 관련 연구자를 필진으로 진행하거나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에 대한 전시, 심포지엄 등을 추진하는 것을 협의하기로 함
- 저작권 등 한국과 일본의 법적 제도와 관계되는 것은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함

- 구체적인 사업이나 추가 작업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협조하고, 웹공개와 아카이브 플랫폼 등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보며 추가로 협의하기로 함
- 자료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나고야성 박물관의 아카이브 혹은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국가한옥센터에서는 이를 링크하여 이용하거나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검색이 가능한 방안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함



[그림 20] 나고야성 박물관 관계자와의 면담



[그림 21] 나고야성 박물관 전경(마에카와 쿠니오 설계)

6. 나고야성 박물관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 조사

■ 개요

- 일시 : 2018.04.06.(금) 14:00~17:00
- 장소 : 나고야성 박물관 수장고
- 참석자
 - 소외 - 가모하라 히로유키(蒲原宏行) 관장, 마쓰오 노리히로(松尾法博) 학예과장, 히사노 데쓰야(久野哲矢), 김민숙 통역
 - 소내 - 이규철 부연구위원, 김종범 위촉연구원

■ 회의 내용

-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의 목록 및 자료 내용
 - 나고야성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의 가목록은 고문서 분류방식에 따라 바인딩된 상태로 표제를 만들어서 붙인 상태임
 - 현재 자료를 열람해보니, 가목록의 제목 아래 10개 이상의 다른 프로젝트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임
 - 혼재된 자료는 일제강점기에 제작했다는 큰 시대적 공통점 외에는 깊은 관련이 없으므로, 전문가에 의해서 가목록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목록정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 전체의 윤곽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오가와 케이키치의 가목록은 83건이고, 이는 모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디지털화했거나 2018년에 디지털화를 완료할 예정
 - 오가와 케이키치 친족이 위탁하여 정리한 1089건의 목록은 친족과 협의하여 기증 또는 반환 등을 결정할 예정임
 - 친족이 위탁한 자료에는 업무일지, 야장, 스케치 등 한국의 건축 관련 자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 오가와 케이키치의 업무일지는 장소로 이동한 경로와 일상적인 내용이 분 단 위까지 기록되어 있어, 당시 문화재 수리의 업무와 오가와 케이키치의 생활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2] 나고야성 박물관 소장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 열람1



그림 23] 나고야성 박물관 소장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 열람2



[그림 24] 나고야성 박물관 소장 자료 전시실

제3장. 일본 내 한국건축 관련 아카이브 현황조사 및 관계자 면담

1. 곤도 유타카 아카이브 구축 연구자 인터뷰: 야노 케이지

■ 개요

- 일시 : 2018.04.03.(화) 09:00~11:30
- ※ 당초 회의일시는 2018.04.01.(일) 11:00~14:00로 기획되었으나, 현지사정으로 인하여 본 일시로 변경하였음
- 장소 : 리쓰메이칸대학 역사도시방재연구소
- 참석자
 - 소외 - 야노 케이지(矢野桂司) 교수 (리쓰메이칸 지리학과·문화재방재연구소), 김민숙 통역
 - 소내 - 이규철 부연구위원, 김종범 위촉연구원

■ 회의내용

- 지리학 차원에서의 역사 아카이브
 - 야노 케이지 교수는 GIS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지리학 교수로서, 지도와 사진 등 역사자료를 현재의 전자지도상에 구현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
 - 최근 GIS Day in Kansai 2018을 통해 최근 지리정보시스템의 교육과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취지로 세미나를 개최²⁾
 - GIS Day in Kansai 2018에는 일본의 고지도와 한국의 고지도에 대해서 아카이브가 포함되어 있음
 - 맵와퍼(Map Warper)기술을 활용하여, 현재 지도와 과거 고지도(레스터 이미지)를 매칭시킴
 - 맵와퍼 기술은 OSM(Open Street Map)을 활용하여 현대지도뿐 아니라 고지도 등을 실제지도와 위치 대응시켜(레스터 이미지 위에 지도 기준점을 넣고, 도로 등 주요 포인트와 맞추어 레스터 이미지를 성형) 공개된 지도를 이미지 데이터로 전송할 수 있음(무료 플랫폼)
 - 맵와퍼는 Tim Waters가 미국에서 개발하여 현재 일본에서는 야노 케이지 교수가 제작한 <https://mapwarper.h-gis.jp/>를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

2) <http://www.arc.ritsumei.ac.jp/GISDAY/2018/GISDAY/gisday2018.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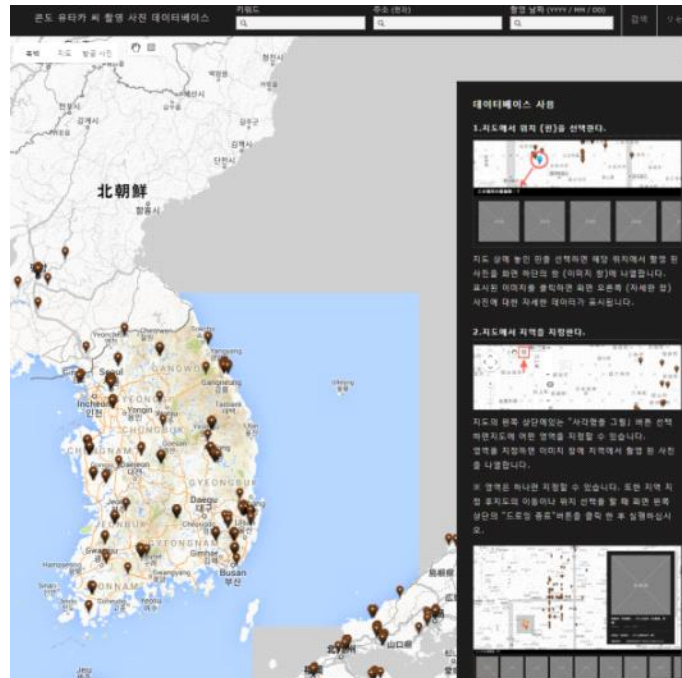
- 이미지를 변화하는 것은 수식을 만드는 것이므로, 다량의 지도를 인공지능으로 적절히 붙이는 기술을 개발 중



[그림 25] Map Warper 기술
(下京第三組衣棚町全図를 구글 지도에 투영)
<https://mapwarper.h-gis.jp/maps/1710>

- 곤도 유타카(近藤豊) 아카이브 프로젝트
 - 지도가 어느 위치에 얼마큼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DB로 만든 것
 - 곤도 유타카 자료는 사진을 이용한 과거 경관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활용하였음
 - 리쓰메이칸아트리지치 사이트의 Data탭에 접속하면 곤도 유타카 사진과 위치정보가 매핑 되어 있음
 - 곤도 유타카 사진자료는 촬영자가 인화사진 후면에 위치를 기록해두었으므로, 그것을 바탕으로 매핑할 수 있었음
 - 현재 곤도 유타카 자료는 6만장(한국 및 일본 포함)정도 되며, 현재 Data탭에는 33장의 한국 사진이 입력됨
 - 사진의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포털 사이트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접근하여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

하고 있음(Open Cloud Source 방식)



[그림 26] 곤도 유타카 촬영 사진 데이터베이스
http://www.dh-jac.net/db1/kondo_misc/

- 현재 곤도 유타카 프로젝트와 같은 아카이브 구축은 오픈데이터를 기초로 한 개인연구자-개인연구자 간 협동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예산이 특별히 편성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별 연구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구축 중
- 곤도 유타카 프로젝트는 교토부립 교토학 역사관과 협업 중이며, 역사관 내에서도 별도 편성된 예산이 없으므로 수록 아카이브별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중
- 리쓰메이칸 아트리서치 센터의 한국 관련 아카이브 매핑
 - 리쓰메이칸 아트리서치 센터에서는 한국 관련 자료를 포함한 아카이브를 웹 서비스 하고 있음(<http://www.arc.ritsumeai.ac.jp/en/database.html>)
 - 한국의 군사지역은 장소를 특정할 수 없으며, 북한지역에 대한 자료도 존재함
 - 원데이터는 디지털 아카이빙만 하고, 축소된 데이터만 웹으로 공개하고 있음
 - 한국의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공동 집필한 『역사지도집의 개념과 제작 방법론』에 리쓰메이칸 아트리서치 센터의 한국 관련 아카이브 정보를 게재하였으며, 중국 등의 정보도 포함된 연구 자료임

- 기타 참고 사항

- <https://www.georeferencer.com/>는 개인 유저에게도 지도를 업로드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http://www.oldmapsonline.org/>는 한국지도를 포함해서 다양한 고지도 아카이브를 제공 중
- <https://www.davidrumsey.com/>은 지오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데이빗 럼지 컬렉션을 실제 지도에 등고를 포함한 매핑 작업을 진행 중



[그림 27] 야노 케이치 교수 면담

2. 곤도 유타카 아카이브 구축 현황 조사

■ 개요

- 일시 : 2018.04.03.(화) 14:00~19:00
- 장소 : 교토학 역채관 회의실, 수장고, 열람실
- 참석자
 - 소외 - 오오츠카 카쓰미(大塚活美) 전문관, 와카바야시 마사히로(若林正博) 주임, 김민숙 통역
 - 소내 - 이규철 부연구위원, 김종범 위촉연구원

■ 회의내용

- 곤도 유타카 사진자료 아카이브
 - 역채관은 사진자료 및 고문서의 디지털화가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곤도 유타카 자료는 자료의 원본상태가 양호하고 자료의 정리가 상당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카이브로 관리하게 되었음

- 디지털 서비스는 야노 케이치 교수의 연구협조로 웹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음
- 원 자료 담당자인 도바시 선생은 2017년도에 퇴임하였으며, 현재는 자료의 정리가 완료되었고 추가적인 수집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자료는 유리건판과 필름 등이 있으며, 당시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2차 레에 걸쳐서 아카이브를 구축(1차 59,000점, 2차 60,000점)
- 한국 관련 자료의 목록은 웹상에서도 검색이 가능
- 리스트에 의하면 1,524건의 한국 자료가 있으며(한국리스트가 별도로 보관됨), 이 중 유리건판사진은 목록 번호 838~905에 해당하는 것임 (약 67매에 달하며 이를 제외하면 모두 필름자료, 현재 곤도 유타카 사진 아카이브 베타에서 서비스를 준비 중)
- 1차 기증자료 수장 때는 목록과 사진을 함께 정리되었으며, 2차 기증 자료는 목록만 웹상에 올려있기 때문에 현재 웹사이트 게시하는 자료는 1차 기증 자료뿐임

近衛建礼院写真集目録(ガラス乾板)

番号	資料名称	資料番号	写真名称	撮影年次	原簿	撮影所	内容分類	事項・寄附	内容	備考
838	近衛建礼院写真資料	838	華厳寺	昭和14年12月4日	1939/12/04	近衛寺 韓国仏寺建築	寄贈	華厳寺三層西廂山門遺跡	ガラス乾板キヤード本	
839	近衛建礼院写真資料	839	華厳寺	昭和14年12月4日	1939/12/04	近衛寺 韓国仏寺建築	寄贈	華厳寺三層西廂山門遺跡石灯	ガラス乾板キヤード本	
840	近衛建礼院写真資料	840	華厳寺	昭和14年12月4日	1939/12/04	近衛寺 韓国仏寺建築	寄贈	華厳寺三層西廂石塔	ガラス乾板キヤード本	
841	近衛建礼院写真資料	841	華厳寺	昭和14年12月3日	1939/12/03	近衛寺 韓国仏寺建築	寄贈	華厳寺東金剛殿石灯下部	ガラス乾板キヤード本	
842	近衛建礼院写真資料	842	華厳寺	昭和14年12月4日	1939/12/04	近衛寺 韓国仏寺建築	寄贈	華厳寺三層西廂石塔前面	ガラス乾板キヤード本	
843	近衛建礼院写真資料	843	華厳寺	昭和14年12月4日	1939/12/04	近衛寺 韓国仏寺建築	寄贈	華厳寺三層西廂石塔下部	ガラス乾板キヤード本	
844	近衛建礼院写真資料	844	華厳寺	昭和14年12月4日	1939/12/04	近衛寺 韓国仏寺建築	寄贈	華厳寺西廂西面彫刻	ガラス乾板キヤード本	
845	近衛建礼院写真資料	845	華厳寺	昭和14年12月3日	1939/12/03	近衛寺 韓国仏寺建築	寄贈	華厳寺東廂西面	ガラス乾板キヤード本	
846	近衛建礼院写真資料	846	華厳寺	昭和14年12月3日	1939/12/03	近衛寺 韓国仏寺建築	寄贈	華厳寺西廂西面遺跡	ガラス乾板キヤード本	
847	近衛建礼院写真資料	847	華厳寺	昭和14年12月4日	1939/12/04	近衛寺 韓国仏寺建築	寄贈	華厳寺金剛	ガラス乾板キヤード本	
848	近衛建礼院写真資料	848	華厳寺	昭和14年12月3日	1939/12/03	近衛寺 韓国仏寺建築	寄贈	華厳寺東廂東面石灯東南面	ガラス乾板キヤード本	
849	近衛建礼院写真資料	849	華厳寺	昭和14年12月3日	1939/12/03	近衛寺 韓国仏寺建築	寄贈	華厳寺石灯西面	ガラス乾板キヤード本	
850	近衛建礼院写真資料	850	華厳寺	昭和14年12月3日	1939/12/03	近衛寺 韓国仏寺建築	寄贈	華厳寺新羅門正基	ガラス乾板キヤード本	
851	近衛建礼院写真資料	851	華厳寺	昭和14年12月3日	1939/12/03	近衛寺 韓国仏寺建築	寄贈	華厳寺新羅門彫刻	ガラス乾板キヤード本	
852	近衛建礼院写真資料	852	華厳寺	昭和14年12月3日	1939/12/03	近衛寺 韓国仏寺建築	寄贈	華厳寺西廂西面	ガラス乾板キヤード本	
853	近衛建礼院写真資料	853	華厳寺	昭和14年12月3日	1939/12/03	近衛寺 韓国仏寺建築	寄贈	華厳寺西廂西面遺跡	ガラス乾板キヤード本	
854	近衛建礼院写真資料	854	華厳寺	昭和14年12月3日	1939/12/03	近衛寺 韓国仏寺建築	寄贈	華厳寺東廂東面石灯	ガラス乾板キヤード本	
855	近衛建礼院写真資料	855	漢州、中央塔、其他	昭和14年12月4日	1939/12/04	近衛寺 韓国仏寺建築	寄贈	華厳寺入口の大規模	ガラス乾板キヤード本	
856	近衛建礼院写真資料	856	漢州、中央塔、其他	昭和14年12月3日	1939/12/03	近衛寺 韓国仏寺建築	寄贈	華厳寺東廂東面石灯	ガラス乾板キヤード本	
857	近衛建礼院写真資料	857	漢州、中央塔、其他	昭和14年12月4日	1939/12/04	近衛寺 韓国仏寺建築	寄贈	智異山華嚴寺境内霊光の境内	ガラス乾板キヤード本	
858	近衛建礼院写真資料	858	漢州、中央塔、其他	昭和14年11月29日	1939/11/29	近衛寺 韓国仏寺建築	寄贈	法住寺新羅殿、同内庭景観	ガラス乾板キヤード本	
859	近衛建礼院写真資料	859	漢州、中央塔、其他	昭和14年11月29日	1939/11/29	近衛寺 韓国仏寺建築	寄贈	法住寺大雄宝殿内西廂	ガラス乾板キヤード本	

1/4

[그림 28] 곤도 유타카 유리건판 사진 목록

京の記憶アーカイブ

検索条件 : 【資料形式】 *近畿* 【内容分類】 *韓流*

1524件ヒットしました。 1~20件目を表示 並び込み順

写真番号	写真タイトル	写真説明	写真サイズ	写真形式
写真001	不送和道輪寺(不送寺)、興隆寺、教正寺	京都府京都市中京区。不送寺は、興隆寺の境内にあり、教正寺は、興隆寺の境内にあり。	4000x3000	JPG
写真002	不送和道輪寺(不送寺)、興隆寺、教正寺	京都府京都市中京区。不送寺は、興隆寺の境内にあり、教正寺は、興隆寺の境内にあり。	4000x3000	JPG
写真003	興隆寺	京都府京都市中京区。興隆寺は、興隆寺の境内にあり。	4000x3000	JPG
写真004	興隆寺	京都府京都市中京区。興隆寺は、興隆寺の境内にあり。	4000x3000	JPG
写真005	興隆寺	京都府京都市中京区。興隆寺は、興隆寺の境内にあり。	4000x3000	JPG
写真006	興隆寺	京都府京都市中京区。興隆寺は、興隆寺の境内にあり。	4000x3000	JPG
写真007	興隆寺	京都府京都市中京区。興隆寺は、興隆寺の境内にあり。	4000x3000	JPG
写真008	興隆寺	京都府京都市中京区。興隆寺は、興隆寺の境内にあり。	4000x3000	JPG
写真009	興隆寺	京都府京都市中京区。興隆寺は、興隆寺の境内にあり。	4000x3000	JPG
写真010	興隆寺	京都府京都市中京区。興隆寺は、興隆寺の境内にあり。	4000x3000	JPG
写真011	興隆寺	京都府京都市中京区。興隆寺は、興隆寺の境内にあり。	4000x3000	JPG
写真012	興隆寺	京都府京都市中京区。興隆寺は、興隆寺の境内にあり。	4000x3000	JPG
写真013	興隆寺	京都府京都市中京区。興隆寺は、興隆寺の境内にあり。	4000x3000	JPG
写真014	興隆寺	京都府京都市中京区。興隆寺は、興隆寺の境内にあり。	4000x3000	JPG
写真015	興隆寺	京都府京都市中京区。興隆寺は、興隆寺の境内にあり。	4000x3000	JPG

<http://www.archives.kyoto.jp/websearchro/list/pag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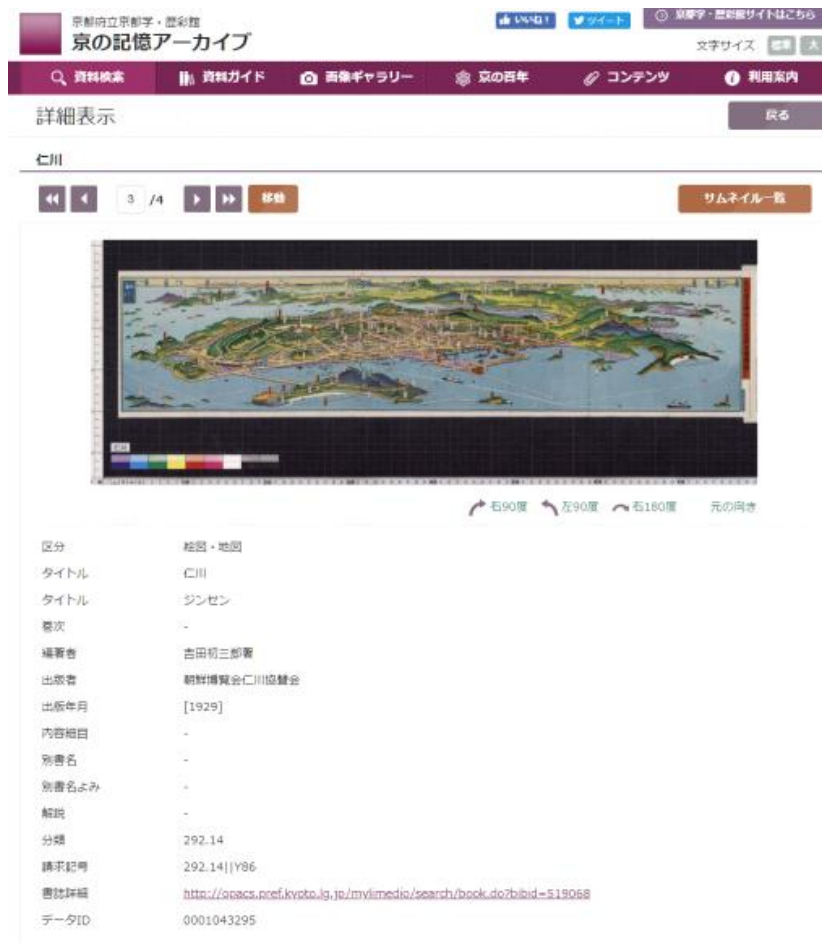
2018/04/02

[그림 29] 곤도 유타카 한국 관련 자료 목록

• 교토학 역채관의 아카이브

- 1963년에 교토부 자료관으로 출발하였으며, 도서·고문서·행정문서·교토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였음
- 역채관은 교토시 본청의 행정문서와 각종 기증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
- 타 지역 유사기관과의 네트워크는 없으며, 국가보조금 없이 운영
- 특정 지역에 대한 아카이브는 해당 지자체나 지자체의 자료관에서 소장하고 있음
- 모든 것을 기증받는 것은 아니고 취사선택을 하고 있으며, 그 범위의 가장 큰 틀을 교토와 관련된 자료임
- 교토부에서 생산한 자료 중에서 실물자료는 박물관(문화박물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의 종이자료는 모두 역채관에서 관리
- 자료관에서 역채관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연구 기능을 추가하기 위함

- 역채관에서는 고서적(메이지 시대 이전)과 도서·자료·고문서(행정문서 등)에 대한 아카이브를 서비스하고 있음
- 역채관은 폭넓은 도서관의 기능과 전시(1층)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도서자료에 대해서는 도서관 네트워크 검색이 가능함
- 2015~2016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되었으며, 현재 공개하고 있는 자료는 그 일부이고 향후 계속해서 공개 예정
- 요시다 하츠사부로 자료도 20점 정도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 중 인천·부산 등의 조감도가 포함되어 있음
- 현재는 신규 촬영 및 스캔은 중단된 상태이며, 향후 예산 확보가 되면 추진할 수 있음



[그림 30] 吉田初三郎 조감도(인천)
역채관 웹사이트 열람, <http://www.archives.kyoto.jp>

- 역채관 아카이브의 활용 현황

- 역채관의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내부 직원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으나 외부에서 관심을 보여서 아카이브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 외부연구자가 웹 검색하다가 주요한 자료가 발견되기도 함
- 지자체의 아카이브이므로 이용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오픈데이터이며, 이용 시 ‘교토학 소장’으로 출처를 표시하는 정도로 자료 활용이 가능함
- 이용 상황에 대해서는 도서 출판, 대중매체의 소개 현황 등을 취합하고 있음
- 이전에도 학술적 목적으로 자료관을 찾는 사람은 많았으며, 웹 아카이브가 구축된 이후에는 연구자가 관외에서도 사전 조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
- 외부 조사 후 기관에 방문하여 더 상세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됨

- 지역사회의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과 연계사업

- 시정촌 단위에서 전시 의사가 있다면 자료를 대여하기도 하고, 시정촌 공무원이 자료를 열람하겠다면 편의를 제공하는 연계서비스 정도 가능
- 교토부립 타 미술관들과 교류하는 정기모임이 있으나, 구체적인 실무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는 아님
- 교토부립이라는 이름이 역채관 앞에 있다 보니 다른 시정촌과 함께 협업하려 하면 기관의 위계 차로 추진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며(부립이라고 하여 위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 그나마 역채관의 예산이 조금 큰 규모라는 차이만 있음
- 실제 5년 전에 시정촌 자료를 취합 검색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각 시정촌별 입장이 달라서 이루어지지 않았음(통합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예산 배정 등의 문제)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자료의 연계를 통해서 DB를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음(자료의 백업을 위해)

- 한국 아카이브 플랫폼과의 연계 협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건축 자료 통합 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토학 역채관의 자료에 대한 링크를 요청한다면 협조가 가능한가?
 - 통합 아카이브 자체로는 긍정적이며, 같은 언어로 검색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됨
 - 다만, 기타 언어로 검색하고 원자료의 언어와 연계하는 방법은 기술적인 데이터 가공이 필요함(그것이 100~200개 수준이면 가능하겠지만, 그 분량이 많아지게 되면 가공자체가 큰 작업이 되므로 어려움)
 - 현재 역채관 시스템의 변화만 없다면, 외부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언제든지 검토가 가능함(언어의 재가공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곤도 유타카 아카이브 등의 수장고 열람
 - 유리건판 및 필름·사진 등 자료의 유형에 따라 온도차를 다르게 보관
 - 필름의 경우에는 습도40%, 온도5도로 유지하고 있으며, 유리건판은 습도40%, 온도12도로 유지



[그림 31] 곤도 유타카의 필름 자료



[그림 32] 교토학 역채관 수장고의 온습도
관리 시스템



[그림 33] 교토학 역채관 관계자 면담

3. 타케나카 목수 도구관 건축 아카이브 조사

■ 개요

- 일시 : 2018.04.04.(수) 10:00~12:00
- 장소 : 타케나카 목수 도구관
- 참석자
 - 소외 - 최고은 학예사, 김민숙 통역
 - 소내 - 이규철 부연구위원, 김종범 위촉연구원

회의내용

- 타케나카 목수 도구관 특성
 - 타케나카 공무점 창립 85주년 사업으로 1984년 개관
 - 현재는 건축 시공을 담당하는 공무점과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
 - 타케나카 공무점의 역사만이 아니라, 전통건축의 시공 관련 기업 및 장인에 대한 폭넓은 아카이브 구축 중
 - 2014년 수장고 부족 및 설비 노후로 인해 신고베역 인근으로 이전
 - 대목장이 직접 교육을 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그림 34] 타케나카 목수 도구관 교육 프로그램실

- 타케나카 목수 도구관 아카이브 구성
 - 현재까지 약 3만점의 아카이브 수집
 - 이 중 목수 연장이 주된 콘텐츠이며, 약 1,000점 수집
 - 상설 전시 외에도 일본 도쿄와 나고야 등에서 순회 기획전을 1년에 1회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전시 마다 일본 전통건축과 관련된 연구 기획을 통하여 분야별 아카이브 구축 중
 - 도구가 중심 콘텐츠이므로 세계의 목공 도구와 관련된 아카이브·명공 아카이브·목재관련 아카이브가 전시 콘텐츠로 마련됨
 - 전통 건축물의 모형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용된 결구방식 및 결구를 위한 치목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적 콘텐츠를 전시내용에 포함
 - 도구별 사용방식과 치목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가 마련

- 다양한 결구부에 대해서 실제 조립 가능한 모형을 제작 전시



[그림 35] 결구부 전시 모형

4. 요네다 미요지 아카이브 관련 친족 인터뷰: 하라 카즈에

■ 개요

- 일시 : 2018.04.05.(목) 16:00~18:00
- 장소 : 치쿠조마치 하라 카즈에씨 자택
- 참석자
 - 소외 - 하라 카즈에(原一枝) 요네다 미요지(米田美代治) 동생의 딸, 요네다 테쓰야(米田鉄也) 문화재위원, 히사노 데쓰야(久野哲矢) 나고야성 박물관 학예원, 김민숙 통역
 - 소내 - 이규철 부연구위원, 김종범 위촉연구원

■ 회의내용

- 요네다 미요지에 대한 기억과 유품
 - 하라 카즈에 씨가 태어나기 2년 전에 요네다 미요지 사망
 - 그림을 좋아했고, 친척들에게도 자주 그림을 선물했다고 들었음
 - 현재 요네다 미요지의 작품으로 알려진 그림 몇 점을 소장하고 있음
- 한국 관련 요네다 미요지의 활동

- 치쿠조마치 출생으로, 1933년부터 조선총독부 학무국 촉탁직으로 근무
- 황해도 황주 등에서 사찰 개보수 활동
- 1938년도 불국사와 석굴암 실측도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경성에서 사망하여 일본으로 요네다 미요지의 자료가 전해지지 못함
- 한국의 근대건축을 연구할 때 주요 참고하는 자료 중 하나인 『조선과 건축』에 요네다 미요지가 미전에서 입선한 그림이 소개된 바 있음
- 현재 하라 씨 자택에 입선작이 보관 중이며, 이외에도 한국의 산수를 그린 그림, 경복궁 향원정, 자경전 등의 그림도 보관
- 요네다 미요지가 자경전을 집무실로 사용했다는 말이 전해짐
- 충무로2가의 ‘금강산’이라는 다방과 관련된 일화가 전해지고 있음



[그림 36] 하라 카즈에 씨 면담

5.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답사

-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아카이브 개요
 - 위치 : B1F 情報資料室, East Building, Hiroshima Peace Memorial Museum, 1-6 Nakajimacho, Naka Ward, Hiroshima, Hiroshima Prefecture 730-0811
 - 기능 : 1955년 개관한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 주건물 외 동측 건물 지하에 아카이브에 대한 정보자료실이 위치하고 있음
평화기념관이 박물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 수장고 및 학예원 시설은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
아카이브 자료실은 공개 자료에 대해서 자유롭게 열람 가능
아카이브 자료실 전실은 히로시마 원폭돔 뿐만 아니라, 일본 내 근대건축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사용
- 「Origin of the Dome - Deciphering the Past Through Photographs and Document」 아카이브 콘텐츠 :

(아카이브 설명문 번역요약)

원폭에 의한 파괴와 평화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히로시마 원폭돔을 통해 건물의 원형을 대해 감지할 수 있다. 이 아카이브는 히로시마 원폭돔의 히로시마 상업전시관의 건축계획부터 건물 파괴까지의 과정에 대한 사진과 기타 소재로 구축돼있다.

메이지시대 후기, 전시관은 다양한 장소에서 지역산업 부흥을 위하여 건축되었다. 대부분의 전시관은 1916년 이전에 지어졌으며, 히로시마에 위치한 전시관은 1915년 이후 건축된 것이다. 타 지역에 비해 늦게 지어졌으나, 결과적으로 세밀한 계획이 가능했다.

건축은 오스트리아 오토 바그너의 영향을 받은 체코 건축가 얀 레첼에 의해서 바로크 풍으로 건축되었다. 얀 레첼은 1907년 6월에 일본에 왔으며, 1909년에 설계사무소를 개업하였다. 얀 레첼은 Dai Nippon Private Sanitary Association(1912), Miyagi Prefectural Mastushima Park Hotel(1913), Sophia University(1914)등을 건축했다. 그는 10여 년간 40여개의 건축물을 지었으며, 이를 통해 일본에 세제션 스타일을 소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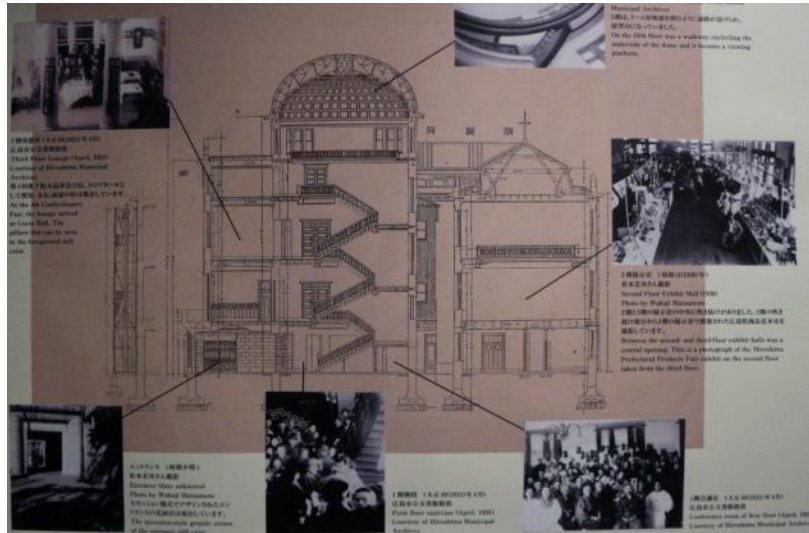


[그림 37] 메이지시대 후기 전시관 건립 양상
(녹색은 1915년 이전 건립지역, 분홍색은 1915년 이후 건립지역)
(Takuya Miyake, “Commercial Museum in Modern Japan, Shibunkaku Publishing Co. 2015)



[그림 38] 얀 레첼의 건축(전시 패널)

1941년 Japan Lumber Regulation Company가 2층으로 이사를 온다. 이때부터 전시관은 사무실로 변경되며, 전시(War-time)에 대비한 사무실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시기에 얀 레켈이 설계한 금속재 게이트는 정부의 금속수집 운동 때문에 없어진다. 1943년 12월 열린 전시가 마지막인데, 그 전시의 제목은 “Masterpieces of the Holy War”이었다.



[그림 39] 원폭돔 단면도 및 공간 촬영 사진



[그림 40] 메인게이트 제거와 관련된 기사문(1941년 6월 20일)

• 아카이브 특징

- 히로시마 평화기념과의 정보자료실로서 건축 관련된 아카이브만 별도로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전시 콘텐츠를 구축할 경우는 지역의 유관 기관과 협조

- 히로시마 원폭투하와 관련된 사건의 기록과 관련된 2차 저작물을 수집하고, 그 내용을 과거 경관(사진 자료 중심)으로 해제하고 있음



[그림 41] 히로시마 원폭투하와 관련된 저작물 아카이브



[그림 42] 히로시마 정보자료실

6. 요시노가리 유적공원 답사

- 유적공원 개요

- 위치 : 842-0035 SAGA-KEN KANZAKI-GUN Yoshinogari-machi TADE 1843
- 설치근거 : 1992년 10월 27일 각료회의 「일본 고유의 뛰어난 문화적 자산인 요시노가리유적의 보존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공원 설치에 대해서」 결정에 의해 설치
- 설치배경 : 유적 주변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함께 보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할 필요(도시공원법 제2조제1항제2호 근거)가 있어서 도시공원으로 설립



[그림 43] 요시노가리 유적공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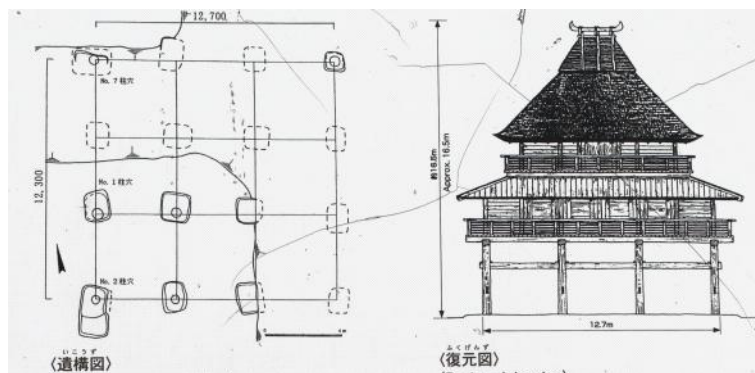


[그림 44] 시장 및 창고 복원

- 요시노가리유적 역사 및 복원 건축물

-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 사이의 야요이(彌生)시대 정주공간

- 3개 마을에 걸쳐져있는 일본 최대의 취락유적
- 2개의 내곽과 북군구묘, 웅관묘(열), 창고 및 시장 등을 복원
- 남측 내곽은 주거지 망루, 취사 공간 등을 복원하여 지배자의 거주공간을 보여줌
- 북측 내곽은 의례공간인 3층의 주제전을 복원하였으며, 고상식 주거를 보여주고 있음
- 지배자의 무덤으로 알려진 북분구묘는 발굴 후 내부를 전시실로 변경
- 유적의 소개문에는 유구 복원 시기를 야요이 말로 정하였으며, 일본 각지의 죠훈~고분 시대에 이르는 출토자료·중국 문헌 및 자료·민속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 복원하였음
- 향후 조사 연구 성과에 의해서 수정될 여지가 있음을 알리고 있음
- 남측 내곽 인근에 전시실을 별도로 운영하여 출토 유적과 토층 전사 등이 전시



[그림 45] 주제단 유구도 및 복원입면도



[그림 46] 주제단 구조부 결구

- 유적복원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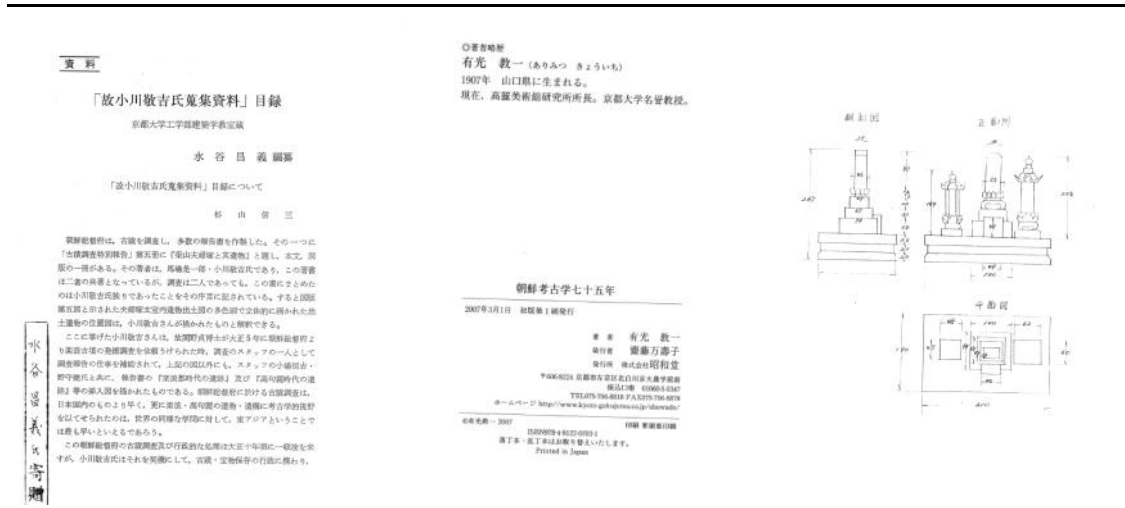
- 고고학적 발굴이후 발굴지를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전시공간으로 바꾼 점은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필요성이 고려될 수 있음
- 원 형식을 알 수 없는 고건축에 대하여 다양한 복원 안을 군락 단위로 제시한 것은 원형에 대한 유보된 판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함

제4장. 출장 성과

- 오가와 케이키치 건축자료 수집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협의 성과
 - 1) 오가와 케이키치의 일본 내 건축사적 가치 및 관련 연구 현황 파악
 - 2) 오가와 케이키치의 1900년대 초중반 일본과 한국에서의 행적을 파악하여, 아카이브 자료의 구축 범주를 마련
 - 3) 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의 현황 파악
 - 4) 나고야성 박물관 소장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의 현황 파악
 - 5) 나고야성 박물관 소장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의 이용 및 아카이브 구축 방법 협의

- 일본의 건축 아카이브 현황 조사 성과
 - 1) 일본 내 한국 고지도 및 사진 자료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현황 및 방법 파악(웹GIS 및 포토필드, 도서관 분류체계로 구축)
 - 2) 도리이 류조, 곤도 유타카, 요네다 미요지 등 한국건축사 및 한국근대사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의 일본 내 소재 파악
 - 3) 타케나카 목수 도구관 사례를 통해 전통건축 시공과 관련된 아카이브 구축방식 및 운영체계의 사례 확인
 - 4) 교토학 역채관,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사례를 통해 부립·시립 등 공공차원의 아카이브 구축방식 및 운영체계의 사례확인

[부록] 취득자료



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케이키치 자료 목록

조선고고학75년
오가와 케이키치·
요네다 미요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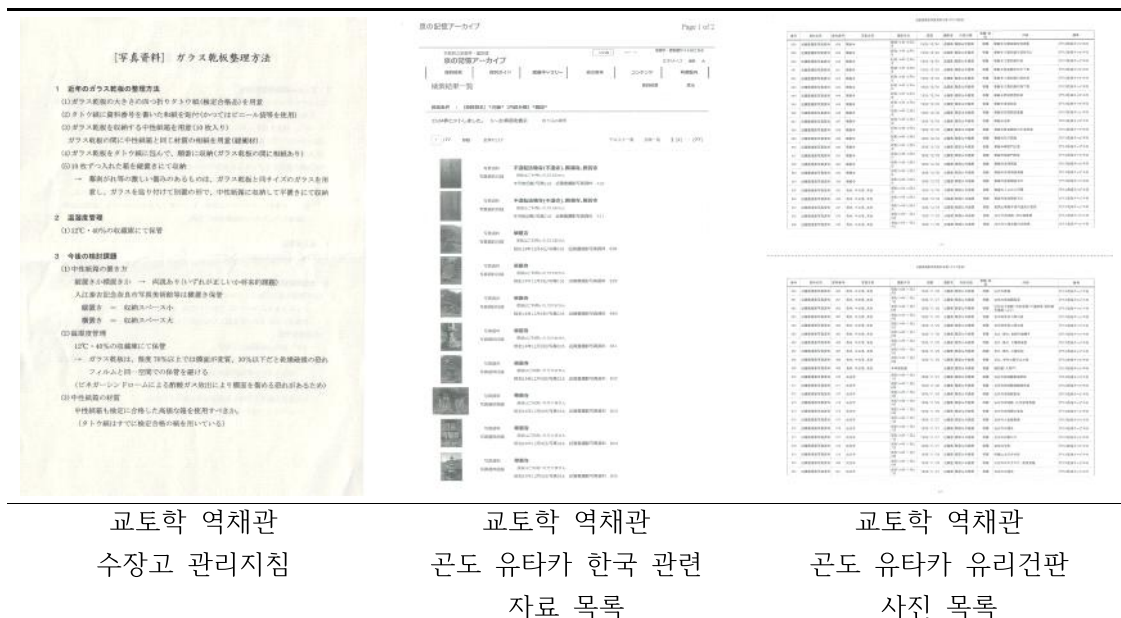
오가와 케이키치
묘도(철거 전)



나고야성 박물관
오가와 케이키치 특별전
전시 자료 1

나고야성 박물관
오가와 케이키치 특별전
전시 자료 2

Historical Japanese
Maps Online
GISday 2018 자료



교토학 역사관
수장고 관리지침

교토학 역사관
곤도 유타카 한국 관련
자료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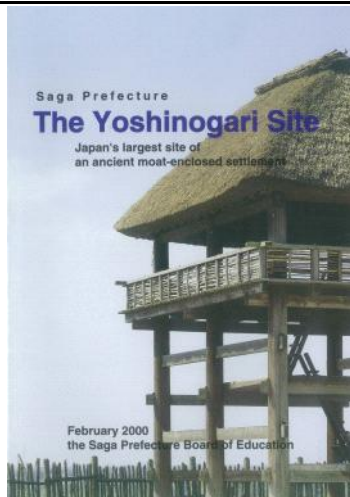
교토학 역사관
곤도 유타카 유리건판
사진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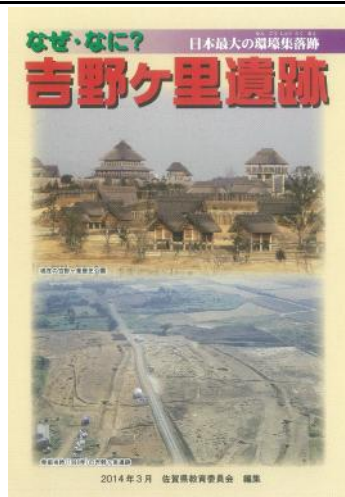
타케나카 목수 도구관
전시 자료

타케나카 목수 도구관
상설전 도록

타케나카 목수 도구관
한중일 대목 기획전
전시 도록



요시노가리 유적공원
소개 자료(2000)



요시노가리 유적공원
소개 자료(2014)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정보자료실 Origins of the
Dome 전시자료